

<전도자의 삶 -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.>

※ 시 90:1-12

[서론]

(1) “후회막심”, “후회막급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?

-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.

(2)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왔습니까?

-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, 혹시라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?

①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것.

- 부모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공부 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. 결국은 지금의 내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. “그때 좀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”

②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.

- 젊었을 때는 노는게 좋았고, 희희낙락 하는게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한 일입니다.

③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.

- 부모들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 해야 합니다. 돌아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

(부모와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)

④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.

- 한번은 병원 심방을 갔더니만, 누워계시던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“목사님! 건강할 때 주의 일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.”

(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, 은혜 주실 때 사명 감당 해야 합니다.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는 후회하는 시간이 옵니다.)

⑤ 저는 생각에, 가장 후회하는 사람은,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.

-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할 것 입니다.

(3)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.

[본론]

1. 성경에 보시면,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.

(1) 아담과 하와.

① 에덴동산의 축복을 놓쳤습니다. 선악과 하나 따먹은 이 사건이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.

② 모든 인류들에게 원죄라는 유산을 물려 주었습니다.

(2) 노아- 아들을 저주한 사건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. (“그놈의 술 때문에”)

(3) 노아 시대 사람들 (네페림 시대)

① 120 년을 외쳐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- 엄청난 시간(기회)이 주어졌음에도 듣지 않았습니다.

② 홍수가 났을 때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?

(4) 소돔고모라 성이 망할 때 두 사위

① 장인(룻)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.

② 유황불이 떨어질 때 후회 막심 했을 것입니다.

(5) 룻의 아내- 다 나와놓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.

(6) 삼손

① 여자(드릴라) 하나 때문에 모든 힘을 잃어 버렸습니다.

② 다곤 신전에서 눈알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.

(7) 미련한 다섯 처녀- 기름준비를 못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

(8) 가룟유다

① 최고로 후회한 사람입니다.

② 후회는 했으나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.

(베드로와의 차이)

2.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(1)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

① 신앙의 변질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일어납니다.

②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.

(2)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.

- “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” (고후 6:1)
- 은혜 받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 맙시다.
- (3) 사명 감당 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.
-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.(고전 4:1)

[결론]

- (1) 옆질러진 물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.
- (2) 지나간 시간도 돌이키지 못합니다. (시 90:9-10)
 - ① 시간(세월)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.
 - ②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고 했습니다.
- (3) 이 짧은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